

건설산업 미래 비전과 건설 경영자의 역할 변화

이 현 수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면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건설산업의 성과와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수주 관행과 빈번한 건설 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면서 건설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건설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 경영자의 자기 성찰과 혁신을 통한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사례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은 거주 환경을 창조하는 산업으로서 인간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건설 생산 체계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건설 생산 체계는 기본적으로 건설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건설 관련 법과 제도가 공평하고 견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도 어느 한쪽에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발주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 법령의 통합과 발주 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확립해 주길 기대해 본다.

이 글¹⁾에서는 건설산업의 근간이 되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미래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건설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新시장 개척과 경쟁력 제고

건설기업을 이끌어가는 건설 경영

1) 이 글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기초 강연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경영 정보

자의 주요 역할은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산업 생태계를 재조정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통찰의 태도가 요구된다. '통섭(consilience)'을 전파한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통찰(Insight)」이라는 최근 저서에서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관통하는 답을 전달하고 있다. 즉, 생명을 가진 것들은 서로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건설은 건설 환경과 시장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Health Car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건설과 연계하면 첨단 의료단지 설립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 국방 전략이 바뀌는 것을 간파하여 모듈러 건축을 이용한 병영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건설기업의 경쟁력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 기술의 수준과 건설 경영자 및 인적 자원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창출을 실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설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린 건설(Lean Construction)이라는 방식을 적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생산성의 극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 주체간 상생 협력을 통하여 최적 설계와 공법을 채택하고 설계와 시공을 통합 관리하여 건설 프로세스상의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대형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 현장에 PMIS를 도입하여 건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시도하거나 6시그마와 같은 신개념 품질 경영을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하여 생산성의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 경력 개발에도 관심을

최근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 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건설 경영자의 기업 경영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건설 경영자는 전문 분야의 요소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건설 경영자는 개인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경영 역량을 배양하고 최신 경영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 경영자는 기업 차원에서 인재의 역량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한 방법으로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하거나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건설 경영자는 CDP에 근거하여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단계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 리더십 갖춰야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Need Finding을 강의하고 있는 데브 팻나이크(Dev Patnaik) 교수는 자신의

저서 「Wired to Care」에서 통계적인 수치와 탁상공론, 기술 개발 등으로는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객과의 공감(empathy)을 중요한 성공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건설산업의 혁신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 경영자는 기업가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만들고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건설 경영자는 건설의 결과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 경영자는 지구 환경의 보전과 재생,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고 가치(best value)의 건설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요즘 해의 플랜트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경영자는 이러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숙지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설 경영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건설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동향과 시장 변화를 수시로 파악하고 사업 다각화와 지역 다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적인 경영 마인드와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경영자 역할 더욱 절실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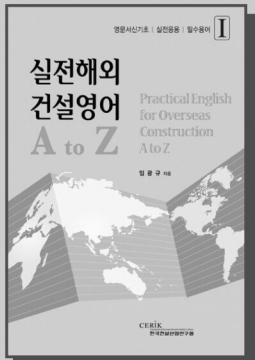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건설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기술에 의존하는 전통적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융합 산업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건설 경영자는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주연 배우로서 자기 계발에 치중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또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 경영자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건설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참모습을 갖추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 건설산업이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필수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설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I」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